



한·중 원자력 협력 추진 성과와 전망

- 제3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를 중심으로 -

조 청 원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조 태 섭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주사

한·중 원자력 협력 추진 배경

한국과 중국은 1992년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1994년 10월 중국의 이붕 당시 총리 방한시 「한·중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과학기술부·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전·한국과학기술원 등은 중국원자력기구·국가핵안전국·중국핵공업총공사·원자력과학원·청화대 등과 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1980년대 들어 중국의 개혁과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1990년 10월 한·중무역대표부 설치, 1992년 2월 한·중 무역협정, 1992년 5월 한·중 투자보장협정, 1992년 9월 한·중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 등 상호 협력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정부는 1998년 4월 ASEM 정상회의 및 1998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의 참여 방안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고 양국간 회의시마다 원자력 기술 협력 증진을 논의하고 있다.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과학기술부는 1999년 10월 북경에서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과학기술부와 중국원자력기구(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CAEA)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에 관한 약정(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 약정 체결 다음해인 2000년 11

월 한국에서 제1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우리측은 과학기술부 차관, 중국측은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주임을 수석 대표로 하여 양국 원자력 관련 기관의 정부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양국 원자력 정책 소개 및 기술 협력 의제 등을 협의하였다.

제1차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향후 효율적인 공동위 운영을 위해 5개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당시 중국 대표단은 원자력연구소·두산중공업 등 우리의 원자력 시설을 방문하였다.

제2차 원자력공동위는 2001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정책 의제 및 5개 실무협의회에서 개발될 기술 협력 의제를 광범위하게 협의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중국

〈표 1〉 한·중 대표단 명단

□ 한국 대표단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수석 대표	과학기술부	차관	이승구	
교체 수석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조청원	
대표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	김창우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장	김승봉	그룹장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행정주사	조태섭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업처 해외사업실장	유승봉	그룹장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지원부장	김학노	그룹장
	한전원자력연료(주)	연구위원	안덕환	그룹장
	한국원자력연구소	동위원소방사선응용연구팀, 과책	한현수	그룹장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농약안전성과장	류갑희	
	한국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1 과장	홍성운	
	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방사능평가실장	문종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심규성	
	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	함중걸	
기술 자문	한국원자력연구소	핵공학연구팀, 과책	오원진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자공학기술개발팀, 과책	이용주	
	한국원자력연구소	핵물리공학팀, 과책	주포국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협력과장	최평훈	
	한국원자력의학원	사이클로트론응용연구실 책임연구원	채종서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협력과장	마금현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분석실장	김오현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방호실, 선임연구원	신형기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물질규제실장	최호신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인구	
	원자력안전기술원	홍보협력팀 선임행정원	박영식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재처 자재정보팀장	김규찬	
	제주대학교	방사선응용연구소장	박재우	

칭화대 부설 원자력기술연구소 (Institut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INET) 및 중국원자력과학원(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CIAE)을 방문하였다.

제3차 한·중 원자력공동위 개최 및 성과

제3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는 2002년 11월 1~2일간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양측 대표단 명단은 〈표 1〉과 같다.

2002년 11월 2일 한·중 원자력공동위 본회의는 한국(수석 대표: 이승구 과기부 차관)과 중국측(수석 대표: 장화추 중국원자력기구 주임)의 공동 사회로 양국 원자력정책 소개 등 정책 의제 및 기술 협력 의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기술 협력 의제는 원자력 발전 등 5개 실무 협의체가 전일 합의한 27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차 공동위의 한·중간 의제별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동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2002년 11월 1일 개최된 실무 회의는 한국측 수석 대표인 과기부 조청원 원자력국장과 중국측 수석 대표인 중국 원자력기구 장징 국장의 공동 사회로 원자력 발전, 원자력 연구 개발,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원자력 안전 및 RI 이용 등 5개 실무협의

체의 사업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27개 기술 협력 의제의 추진을 합의하였다.

1. 원자력 발전

한·중 쌍방은 2002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된 원전 국산화 경험 교류 세미나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한·중 원전 국산화 경험 교류 세미나시 중국측이 제의한 정비 관리 분야 교류, Spare Part 공동 활용, PSR(Periodic Safety

Review) 분야 기술 교류, EOP (Emergency Operation Procedure) 작성 경험 교류, Tech Spec 작성 경험 교류, 한·중간 기술자 교환 방문 및 운영 기술 지원 등의 신규 협력 과제는 양국의 관련 기술 수준, 협력 필요성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협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이 제의한 AMANI(Asian Mutual Association for Nuclear Insurance, 아시아 원자

□ 중국 대표단

Head Delegate	Mr. ZHANG Huazhu Chairman of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CAEA)
Alternate Head Delegate	Mr. ZHANG Jing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AEA
Delegates	Mr. YANG Changli Director General Depart of Science, Technology & International Cooperation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CNNC)
	Mr. ZHENG Kemin Deputy Division Director, CAEA Mr. FENG Yi Division Director, CAEA Mr. LI Sen Project Official, CAEA Ms. Zhang Shaoping Interpreter, CAEA Ms. YANG Lin Deputy Division Director CNNC Mr. XU Jingming Vice President Institut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Tsinghua University Mr. ZHANG Shengdong Professor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CIAE) Institut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Mr. XIA Haihong Professor, CIAE Mr. KE Guotu Professor, CIAE Mr. LI Xiang Senior Engineer 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 Mr. XIAO Daiyun Senior Engineer 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 Mr. WANG Ju Professor Beijing Research Institute of Uranium Geology

력보험 공제조합) 설립 가능성을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정보 교류, 교환 방문 및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원전 I&C 분야 장비의 기계에 대한 기기 검증 체계 및 절차를 상호 교환하여 기기 검증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I&C

분야의 기기 검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 상호 방문 및 상호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2. 원자력 연구 개발

양측은 고온가스냉각로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원자력 연구 기관, 에너지 연구 기관 및 대학간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열수력 실험을 위한 첨단 측정 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전문가의 상호 방문, 워크숍(2003년도에는 공동 워크숍) 개최, 기술 정보 교환 및 협동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열전달 실험 및 응용 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전문가의 상호 방문, 워크숍(2003년도에는 공동 워크숍) 개최, 기술 정보 교환 및 협동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 가속기 및 활용 기술의 개발과 관련한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함에 있어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선 차기 실무 협의시, 양측은 가속기공동 미임계로 기술과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중국선진연구로(CARR)의 건조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중국원자력연구소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칭화대학 원자력기술연구소(INET)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고온가스냉각로의 고온열을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의 개발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열수력 실험 모사 및 코드 평가에 대한 협력이 상호 유익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측은 2002년 북경 세미나에서 합의한 차기 협력 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극초단 고강도 레이저의 설계 제작, 레이저 핵융합 프라즈마의 진단 기술, 레이저 증폭기의 복합 건조 등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고속 점화, 표적 제작, 컴퓨터 코드 등과 같은 기반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도 진흥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양측은 핵연료 주기 및 방사성 폐기물 분야의 기술 개발에 관한 협력 촉진에 합의하였으며, 제4차 방사성 폐기물 및 핵연료 주기 워크숍을 2003년 7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워크숍에는 고속로 및 비파괴 검사에 관한 기술을 포함시키며, 연구소·대학 및 산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KAERI와 NPIC간 조사 후 시험 기술 분야에 기술 협력 촉진을 합의하며 1회에 약 1주일간의

조사후 시험 전문가 1~2명씩을 상호 교환 방문, 조사후 시험, hot cell 운전 및 유지에 관한 기술 정보 교환 등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조사후 시험 분야에 관한 기술 협력의 시작 단계로서 관련 전문가를 상호 교환 방문토록 하며 조사후 시험 및 hot cell 운전 경험에 관한 기술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연구로 및 hot laboratories를 포함한 핵시설의 제염 해체 분야에 관한 기술 정보 및 전문가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Fq(z) 감시, Relaxed axial offset control, 주기 연장 운전, 선진 핵연료 개발 등과 같은 원자력발전소 노심 관리 기술에 관한 세미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4.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

한국측은 양국간 원자력 사고·고장 정보 교환을 위한 채널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정보 교환 촉진을 위한 연락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KINS-NNSA 규제 정보 교환 회의에서 원전 운전 경험 정보 교환과 향후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원자력 비상 관리 분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양국의 관련 기관, 특히 담당

부처(competent authorities)간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비상 통신 채널 구축, 정기적인 비상 통신 훈련 등과 같은 세부 협력 방안 협의를 위해 조만간 대표단을 교환키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환경 방사선 감시를 위한 내부 선량 평가 기술 분야 협력을 신규 의제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2002년 7월 KINS 대표단의 중국 방문시 잠정 합의된 환경 방사선 감시 및 평가 분야의 KINS-RMTC(복사환경감측기술센터)간 MOU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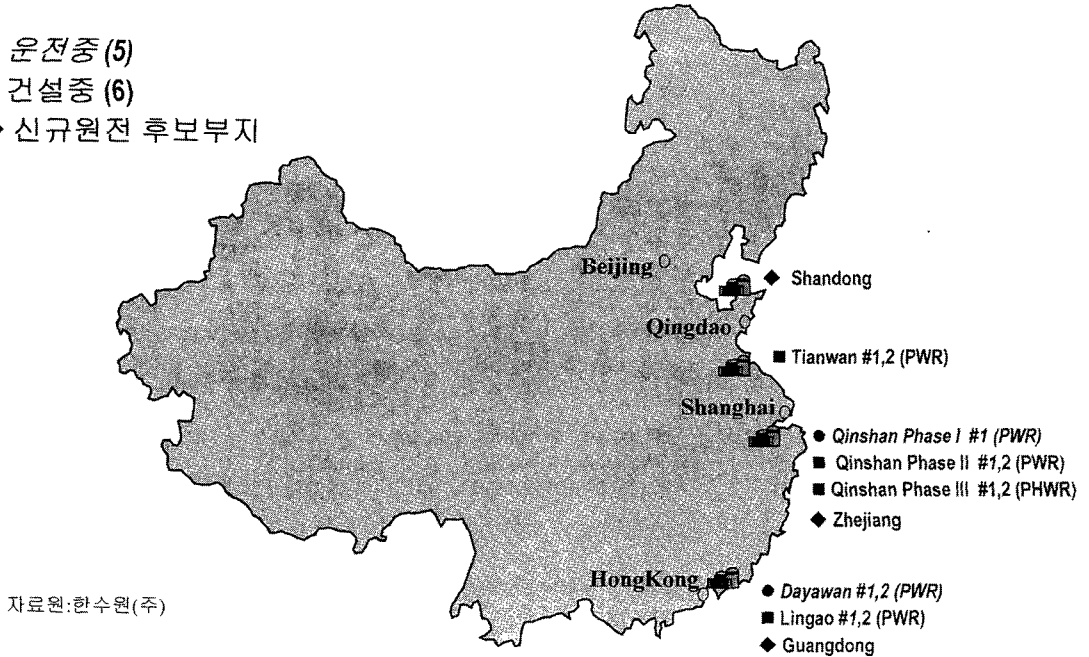
양측은 방사선원 안전 관리에 관한 양국의 현황을 이해하고 세부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교환키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방사선 비상시 진료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2002년 6월 원자력의학원과 방사선방호·원자력 안전센터(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간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방사선 피해자에 관한 비상 진료 대응 시스템 구축과 방사선 피해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위해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5.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양측은 새로운 germplasm 창출과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자극에 대하여 고품질과 다양한 저항성

- 운전중 (5)
- 건설중 (6)
- ◆ 신규원전 후보부지



자료원: 한수원(주)

중국 원전의 위치도

를 갖는 매체의 육종을 위하여 감마선, 이온빔 조사, EMS 및 공간 유발형 돌연변이 기술 등의 효과적인 이용 방법론과 이용 기술 조사 협력을 합의하였다.

종자의 우생성과 가공성 및 조리 성질이 뛰어난 쌀·밀 및 기타 곡물의 변종 선별 및 광역 제초제에 저항성이 있는 곡물(쌀·밀) 육종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관상용 식물의 육종 시스템 확립 및 시장성이 있는 신 화훼 식물의 품종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작물 영양과 종합 토양 비옥도 관리를 위한 ^{15}N 및 ^{14}C 의 이용 연구와 관련하여 질소 비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기술 조사 및 알칼리 토양에 곡물 지푸라기를 사용한 유기질 및 무기질이 혼합된 비료의 효과적 이용 연구, 광합성

생성물의 이동과 쌀의 품질 관계, 단백질 함량과 전분 형성에 미치는 비료-물 관리 영향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농화학 물질의 잔류량 및 분해, 환경 시스템에서 농화학 물질의 fate에 대한 연구 및 환경에 남아 있는 농화학 물질 영향 연구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원자로 가동 중지 기간 방사성 동위원소 일상 생산과 원료 물질의 백업 공급 체제 구축 및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연구 및 생산 기술, 치료용 방사선원 제조, 치료용 베타 방출 핵종의 방사성 의약품 개발,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정보 및 인력 교환, 공동 연구를 통한 신제품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제

작, 이온빔 기술 교환 및 부품에 대한 프로토콜 표준화를 위한 한·중 기술 협력을 합의하였다.

의료용 사이클로트론의 이용과 관련 I-123 및 F-18 등과 그 표지 화합물 연구 및 FDG와 같은 PE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용 핵종의 자동 합성 장치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의 원전 현황 및 주요 원자력 관련 국가 목표 및 건설 규모

1. 중국의 원전 현황

2001년 말 현재 중국의 전력 설비 현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원자력은 2.1백만kW로써 점유율은 0.6%이며 향후 중국의 경제 발전 및 원전 추가 건설에 따라 그 점유율의 증가가 예상된다.

〈표 2〉 중국의 전력 설비 현황

(2001년 말 현재)

구분	화력	수력	원자력	합계
설비 용량(백만kW)	252.8	82.7	2.1	338.0
점유율(%)	74.8	24.5	0.6	100.0

자료원 : 한국수력원자력(주)

또한 원자력 발전 현황은 〈표 3〉과 같으며, 운전중인 5기의 원전 외에 6기의 원전이 건설중에 있는데 그 위치는 〈그림〉과 같다.

〈표 3〉 중국의 원전 현황

원전명	노형	용량 (만kWe)	공급자	준공	위치
大亞灣 #1	경수로	90	佛 프라마툼	1994. 2	광둥성, 홍콩
大亞灣 #2	"	90	"	1994. 5	북동쪽 50km
秦山 1단계	"	30	中 CNNC	1994. 4	절강성, 상해 남서쪽 126km
秦山 2단계(#1)	"	60	"	2002. 4	
秦山 2단계(#2)	"	60	"	(2003. 4)	
秦山 3단계(#1)	중수로	70	캐나다 AECL	(2003. 2)	
秦山 3단계(#2)	"	70	"	(2003.11)	
嶺澳 #1	경수로	100	佛 프라마툼	2002. 5	광둥성 대야만
嶺澳 #2	"	100	"	(2003. 3)	원전 서쪽 부지
田灣 #1	"	100	러시아	(2004. 8)	강소성
田灣 #2	"	100	"	(2005. 8)	

※운전중 원전 5기(370만kW), 건설중 원전 6기(500만kW)

자료원 : 한국수력원자력(주)

2. 중국의 원전 현황 및 주요 원자력 관련 국가 목표 및 건설 규모

최근 중국 국가원자능기구(CAEA)가 '10·5 계획' 기간인 2001~2005년 중 중국의 원전 사업, 핵연료 순환 및 원전 기술 개발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전 사업

'10·5 계획' 기간중 원전 사업의 목표는 원전 노형의 통일, 100만kW급 이상의 가압수로 개발, 100만kW급 원전의 국산화와 표준화 실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100만kW급 원전 건설은 '중국 이 주체가 되어 대외 합작을 하는 방식'(以我爲主, 中外合作)으로 점차 국산화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하며, 최초 2대의 100만kW급 가압수로의 국산화 비율은 55%, 이후 제3호기와 제4호기는 7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계획에 의하면, 원전의 안전을 위해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 기준의 발전 추세와 국가 원자력 안전 법규와 규정에 부합토록 하고, 연해 지역에 착공될 원전의 전력 가격이 동일한 지역 내 탈황 설비를 갖춘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격에 비해 경

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원전 설비 규모는 2005년, 2010년, 2015년의 전력 발전 계획과 원전 국산화 진도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따라 산정하되, 2001~2005년간 새로 착공하게 될 설비 규모는 600만kW에 도달하고, 2010년까지 원전의 총설비 용량이 1,500만kW에 도달하는 것이다.

원전 사업의 배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에너지 및 전력 수요, 전략 및 계획에 따라 배치하고, 프로젝트 법인 책임제와 사업주의 용자 능력에 따라 확정되는데, 지리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지역에 몇 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10·5 계획' 기간중 광둥(廣東),

절강(浙江) 및 산둥(山東) 등 3개 지역에 원전을 각각 1개씩 착공시키고 발전소마다 2기의 100만kW급 가압수로 건설을 계획중이며, 원자로를 표준화하고 설계와 건설 경험을 feed-back하기 위해 상기 3개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나. 핵연료 주기

원전의 지속적인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탐사, 암석 형태 매장, 현장 폭파 채굴 등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 능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10·5 계획' 기간중 사암형(砂巖型)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는 이론을 연구하고 신탐사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여 2005년까지 1만톤 이상인 2~3곳



의 우라늄 자원의 예비 탐사를 시행하여 우라늄 자원량의 2~5만톤 증가를 목표로 한다.

원전 수요에 따라 핵연료를 생산하고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품질이 우수한 핵연료를 개발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MOX 연료에 대한 기술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공장을 건설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핵연료 처리에 관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핵시설 해체 사업도 병행 진행하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와 대형 원자로 시설의 해체 및 오염 물질의 효율적인 제거 기술 개발도 강화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에 처분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 원자력 연구 개발

100만kW급 원전의 국산화 기술, 원전의 운전 기술 및 유지 보수 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고, 가압수로 첨단 기술의 연구, 시험용 초고속원자로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인재 배양 및 경험을 축적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자력 기술의 산업적 이용을 강화하여 핵농학, 핵의학, 환경 보호, 대형 감측 시스템 등에 응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물리, 원자로물리,

핵융합, 핵화학 및 방사화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첨단 기술을 파악하여 국산화된 연구 성과를 거양하고, 원자력 기술 기초 연구의 전반적인 창조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라.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안전

중국의 원전 발전 수요에 따라 원자력 안전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기초 데이터 백그를 구축하고, 방호 기술을 연구하여 안전 수준을 제고하며 임계 작업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11월 1일 광둥성(廣東省) 심천(深圳)에서 개최된 「대아만핵전 녹색논단(大亞灣核電綠色論壇)」에서 광둥성 환경보호국 관계자는 '11·5 계획' 기간중(2006~2010) 광둥성의 3번째 원전을 양강시(陽江市)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계획중인 원전은 중국광동핵전집단공사가 건설할 계획이며 광둥성 원자력 설비 용량을 1,000만kW 이상으로 하고, 광둥성 전체 발전량의 20%에 도달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향후 한·중 협력 방안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토가 광활하여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원자력 시장의 잠재력 또한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

다. 중국은 원자력 기초 과학 분야에서 저력을 가지고 있다.

원전 표준화, 원전 종합 설계, 원전 주요 기기 제조 기술 및 다목적로 설계·운영의 분야를 개발한 한국과 핵연료 주기 기술 및 고온가스 냉각로 등 첨단 기술과 원자력 기초 과학 등의 분야에서 기반이 탄탄한 중국과의 교류 협력 확대는 상호보완적이다.

한·중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 총론 수준의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각론 수준의 다양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국간에 비교 우위 기술에 대한 접목도 필요하다.

우리의 우위 기술 중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조사하는 것이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양국간에 원자력기술조사단 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부의 국제 협력 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원자력계가 대중국 협력의 최적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양국 정부간 교류 협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간 부문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호혜적 관계를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지속적 원자력 개발 정책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파트너 관계로의 발전도 전망될 수 있다. ☉